www.syfund.co.kr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18.07.27.~2018.10.26.

신영자산운용

#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맡아 운용하고 있는 펀드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펀드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이익은 얼마나 냈는지 같이 살펴 볼까요.**

시장이 10% 정도 하락하면서 우리 펀드도 영향을 받아 낮은 수익률을 보였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고 크게 움직였답니다. 우리펀드는 금융업, 비금속광물의 업종은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화학, 건설, 철강, 서비스업종의 주식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어요.

향후에도 주식시장은 변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기업이 벌어들여 한 단계 상승한 이익과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작년에 비해 기업 실적이 좋아졌고, 한국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펀드는 현재 상황을 저평가된 기업, 성장이 가능한 기업,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랍니다. 또한 환경관련 투자 증가가 기대되는 일부 산업재 업종과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는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IT소재 관련 종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랍니다.

##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18. 10. 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11.40 %**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18. 07. 27. ~ 2018. 10. 26.) -11.40%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10.29%인 것에 비하면 1.11%pt만큼 낮습니다.

| 최근 5년 수익률 | 최근 3년 수익률 | 최근 1년 수익률 |
|---|---|---|
| +19.92 % | +8.19 % | -12.94 % |
| 비교지수 : +0.88% | 비교지수 : -0.27% | 비교지수 : -16.40% |
| 비교지수대비 : +19.04%pt | 비교지수대비 : +8.46%pt | 비교지수대비 : +3.46%pt |

**24,046 백만원** — 순자산 총액

**-10.41%pt** ↓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10.41%pt 줄었어요.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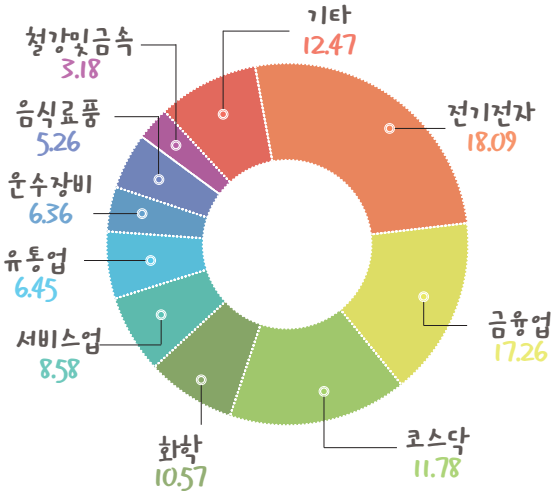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 2018. 10. 26. , 단위 : %)

| | | | | | |
|---|---|---|---|---|---|
| 1위 | 삼성전자 | 13.64 | 6위 | SK이노베이션 | 1.93 |
| 2위 | LS | 3.33 | 7위 | SK | 1.92 |
| 3위 | CJ ENM | 2.74 | 8위 | 삼성SDI | 1.81 |
| 4위 | KT | 2.22 | 9위 | 대림산업 | 1.77 |
| 5위 | 현대중공업 | 1.96 | 10위 | 대림 | 1.76 |

2018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은 지난번과 같이 삼성전자, LS와 같은 종목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네요.

#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볼까요?>

### 삼성SDI

삼성그룹 계열사로 2차전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 전자재료를 만드는 기업이랍니다. 현재는 성장 산업에 속하는 2차전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 대림산업

대림그룹의 주력기업으로 주택, 토목, 플랜트 등 건축 공사를 하고, 석유화학 제품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 KT

유선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사업과 콘텐츠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LTE보다 빠른 5G 기술 선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경쟁사 관계에 있는 기업이랍니다.

##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볼까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18. 10. 26.

(단위 : 백만원, %)

| 매수 | |
|---|---|
| 수량 | 금액 |
| 71,900 | 2,820 |

| 매도 | |
|---|---|
| 수량 | 금액 |
| 66,582 | 2,526 |

| 매매회전율 | |
|---|---|
| 해당기간 | 연환산 |
| 9.62 | 38.16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 2018.01.27 ~ 2018.04.26 | 2018.04.27 ~ 2018.07.26 | 2018.07.27 ~ 2018.10.26 |
|---|---|---|
| 20.53% | 22.39% | 9.62% |

#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어린이와 노인 등 야외활동 자제해야'*

여러분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고 뉴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거에요.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공기 중 오염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우리 건강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해요. 화석연료는 우리 삶의 에너지원의 상당수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줄이기가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 석유 등을 태우는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으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하지만 화력발전은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미세먼지와 같이 공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원자력 발전은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석탄, 석유 등의 화력발전은 한정된 양의 자원이라 고갈될 염려가 있답니다.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끊임 없이 연구 중이에요.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고갈될 염려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데 돈이 매우 많이 들어요. 태양광은 해가 떠있을 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독일은 석탄을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나라였다가 2012년에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여 2018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화석연료를 넘어서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가정이나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초기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후에는 자원이 무한하기 때문에 단가가 오히려 낮아지게 되어 독일 소비자들의 전기 부담금은 점차 낮아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국가가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계산할 때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길게 보면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신재생 에너지산업은 비용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는 화력발전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독일의 에너지 전환과정을 잘 보면 좋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다양한 에너지 효율기술을 설비에 적용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니어 경제박사 친구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신재생에너지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 우리 펀드의 운용 ( 부모님께 )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주식)의 3개월 수익률은 -11.40%로 비교지수 -10.29% 대비 1.11%pt 하회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운용경과>**

펀드가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 비금속광물, 금융업 등 업종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펀드가 보유한 화학, 건설, 철강, 서비스업 등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비교지수 대비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펀드가 보유한 기업의 주가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식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달러강세 및 미국 금리상승으로 인한 신흥국 유동성 위축 우려 등 대외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의 급락 이후 9월 일부 제한적인 반등이 있었으나 상기의 대외변수 우려가 재부각되고 견조한 모습을 보이던 미국 증시마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 기업의 실적 둔화 우려 등으로 급락하며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실적 안정성이 부각된 통신, 금융 업종과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조선 업종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불안정한 대외변수로 철강 및 금속, 전기전자, 화학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과 실적 부진 우려로 의료정밀, 전기가스 업종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펀드는 KOSPI의 상승에도 주가 소외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대형 우량주와 향후 2~3년 사이에 기업가치 상승이 진행될 업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장가치가 있는 중소형주의 편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

향후 주식시장은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나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평가 된 수준을 고려 시 추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코스피 지수 한국 상장기업의 한 단계 상승한 순이익, 순자산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수준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세, 전년 대비 기업 실적의 절대적인 개선세를 감안 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기 고점 논란의 지속과 미국 외 경기는 상반기의 부진에서 반등 정도만 기대된다는 점, 한국 주식시장도 저평가 매력 외 지수 상승을 이끌 뚜렷한 요인이 없는 상황으로 지수 상승여력도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 연준의 긴축스탠스 완화, 미-중 분쟁 이슈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한 전반적인 시장상승 보다는 기업 본질의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며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 지수 수준에서 저평가된 기업,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주주 환원 등으로 인한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하 중국 대비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분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각국의 재정정책 및 환경관련 투자 증가가 기대되는 일부 산업재 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성장산업에 속해 있는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IT 소재 관련 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분기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적 개선세에 따라 차별화 될 종목,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 발굴 및 저가 편입에 집중하여 펀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